

韓国語版

미야자키현 종합박물관

민가원 안내

① 구 후지타가주택



② 구 쿠로키가주택



③ 시바의 민가



④ 메라의 민가



민가원

① 구 후지타가주택

화장실

③ 시바의 민가

← 종합박물관

② 구 쿠로키가 주택

④ 메라의 민가

↓ 미야자키신궁

민가공원에서
'가구라공연' 모습



민가원이란

미야자키현 내 각지에서는, 지방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민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색 있는 4채의 민가를 1972년부터 1978년에 걸쳐 미야자키현 종합 박물관 민가원으로 이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부터 2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중 '구 후지타가 주택'과 '구 쿠로기가 주택'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시바의 민가'와 '메라의 민가'는 미야자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가 내부에는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와 생활에서 사용한 도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민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민가원에서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설화 공연과 옛날 그대로의 계절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① 구 후지타가 주택(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90.44㎡

구 후지타가 주택은, 규슈 산지 중앙부에 남아 있는 옛날 형식을 보존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민가로, 미야자키현 북서부의 고카세정에서 이전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이 민가는 현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입니다. 방 구조는 2개의 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칸막이 기둥에 새겨져있는 글자로 1787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② 구 쿠로기가 주택(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131.88㎡

구 쿠로기가주택은, 다카하라정의 농촌에 살고 있던 무사의 건물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 미야자키현 남서부에 분포하는 2채를 연결한 농가 건물 형식입니다. 발견된 기록물에 의하면 1834년부터 2년간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③ 시바의 민가(미야자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137.97㎡

시바의 민가는, 시바촌에 있던 기요타가주택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 미야자키현 서부에 분포하는 병렬형 농가입니다. 방 구조는 방을 일렬로 옆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3개의 방과 봉당(마루를 깔지 않은 흙바닥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집 바깥쪽으로는 긴 킷마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체작업 중에 발견된 기록물에 의하면 1864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④ 메라의 민가(미야자키현지정 유형문화재) 110.13㎡

메라의 민가는, 니시메라촌에 있는 쿠로기가 주택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 산간의 삼단 돌 위에 지어져 외관, 방구조 등 옛날 니시메라의 농가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또, 튼튼한 골조의 마구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821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880-0053 宮崎県宮崎市神宮2丁目4番4号

T e l 0985-24-2071 F a x 0985-24-2199

www.miyazaki-archive.jp/museum/

